

365일 365시장 구경

스토리 영주 365시장

스토리발굴 우현화

추석이 지나간 영주 시장은 다시금 제 속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이라 사람도 물건도 바빠 오고 가던 시장길은 비로소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유로운 시장길을 따라 산책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랜드로바 앞길 쪽으로 펼쳐진 떡볶이 포장마차, 일명 '랜떡' 을 한 그릇 먹고 가려 했는데 '아차' 문이 닫혀있습니다. '랜떡' 은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유명 유튜버도 방문하여 이젠 명실공히 영주의 랜드마크가 된 맛집입니다. 타지에 사는 친구들도 영주에 오고 싶은 이유가 이 떡볶이 맛이 궁금해 서라고 하니 신기한 일입니다.



닫혀있는 '랜떡' 을 지나 걸음을 옮기면 영주 365시장이 나옵니다. 365일 열려있는 시장이라 '365시장' 이라고 하지만 역시 명절이 지나가니 문을 닫은 곳들도 보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타지에 살던 고향 사람들까지 몰려드는 곳이라, 이 시장은 웬만한 대도시 마트 보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습니다. 부침개 가게는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나듯 팔려나가니 한 가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만 대여섯은 넘고, 쌓여있는 계란판을 보면 양계장인가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떡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약을 해두지 않으면 사지 못하기도 하는데, 역시 대목이 지나가니 여유가 있어 천천히 고를 수 있음에 오히려 한산한 시기에 찾은 것이 잘한 일이 아닐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 신기한 시장입니다. 평소에는 한산하게 쉬어가는 듯 보이지만 타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와 먹는 문어 가게들도 있고, 대목이 아니더라도 고소한 냄새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침개와 떡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라 깨끗하게 새로 장사를 시작한 식당들도 금방 문을 닫고 하는데, 365시장의 상가들은 이곳만의 주기와 속도로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니 오랜 상인들의 힘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조용히, 그러면서도 굳건히 제 자리를 지키는 영주 365 시장의 향기가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장의 특이한 점을 고르자면 문어가 유명합니다. 영주는 바다와 닿아있지 않아 해산물이 날 수 없는데도 문어 전문점들이 많습니다.

문어 골목으로 가면 바닷가에서도 보기 힘들 정도로 싱싱하고 커다란 문어를 내어다 놓고 파는 상가가 있습니다. 커다란 고무 대야에는 어른 팔뚝보다 굵은 문어 다리가 둥둥 떠 있는데, 이렇게 싱싱한 문어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는, 1959년에 영주를 지나는 영동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영동선은 영주와 강릉을 이어주었는데, 이 철도 때문에 강릉과 묵호, 속초에서 잡힌 문어가 영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 현지에서 바로 먹는 것보다 영주로 이동하는 동안 문어가 숙성되면서 더 맛있어졌다고 하는데, 문어가 잡히는 곳에서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맛있는 문어가 되었다는 것이 더 재미있지요?

